KIWOOM DAILY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협상 2주 연장 기대감 등으로 장중 낙폭 축소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7일(화)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미국의 하르그섬 공격 및 이란의 대화 중단 소식에 따른 유가 급등 여파로 약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요청으로 2주 협상 기한 연장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2%, S&P500 +0.1%, 나스닥 +0.1%).

최후통첩 시한인 한국시간 오전 9시를 앞두고, 악시오스 등 일부 외신을 통해 미국이 하르그섬 내 발전소 등 인프라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트럼프 역시 한 문명이 완전 사라질 것이라는 식의 강경 발언을 한 가운데, 이란에서도 미국과 소통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태가 악화될 뻔했던 실정.

그러나 파키스탄의 2주 협상 시한 연장 소식이 분위기 반전의 신호로 작용했던 모습. 아직 트럼프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백악관과 이란 고위층에서는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점을 미루어 보아, 수시간 이내에 합의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협상 시한 연장이라는 휴전의 성격일 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잔존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트럼프의 입장 번복 발언이 증시에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음.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협상 연장 사실은 미국 이란 모두 전쟁 장기화의 실익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 주식시장에서도 전쟁 리스크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내성이 생긴 만큼, 추후 협상 불확실성에 추가로 직면하더라도 매도 대응은 자제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전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 서프라이즈 효과로 2%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미-이란 협상 시한을 앞둔 휴전 불발 경계심리 확산, 개별 바이오주 악재 등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며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1.0%).

금일에는 전일 미국 증시 장중 낙폭 축소, 브로드컴(+6.2%)의 알파벳(+2.1%)과 TPU 장기 계약 및 마이크론(-0.1%)의 장중 반등과 같은 반도체주 호재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 9시 전후 트럼프의 발언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장중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일시적인 변동성 장세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

이처럼 전쟁 불확실성이 증시 변동성을 빈번하게 유발하고 있는 피로도 높은 환경이 1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전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시즌이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번 실적시즌이 전쟁발 주가 조정 압력을 극복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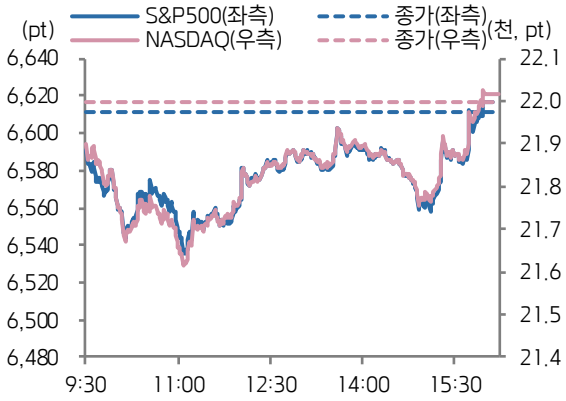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 서프라이즈(57조원 vs 컨센 38조원)는 안도감을 부여하는 요인. HBM 수요 급증, 레거시 메모리 공급 병목 현상이 만들어낸 메모리 가격 급등 효과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점이 호실적의 배경. 뿐만 아니라, 이번 삼성전자의 호실적 효과로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 및 코스피 전반에 걸친 이익 컨센서스의 추가 상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7일 기준, 2026년 반도체,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383조원, 663조원으로 4분기 실적시즌 당시인 1월말 대비 각각 29%, 18% 상향)

물론 전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중 전강후약의 패턴을 연출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 이는 일부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1분기 이후 반도체 업종에서 추가적인 상방 재료의 등장 여부에 대한 고민이 반영 중임을 시사.

대표적으로 1) 반도체의 절대적인 이익 레벨은 증가하지만, 이익 증가율은 상반기 고점을 찍고 둔화될 것인지, 2) 수익성 우려가 있는 미국 AI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는지, 3) 전쟁과 같은 외생 변수로 전방 수요가 조기에 위축되진 않을 것인지와 같은 고민들이 그에 해당. 주가가 심리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기에, 최근 전반적인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위와 같은 고민이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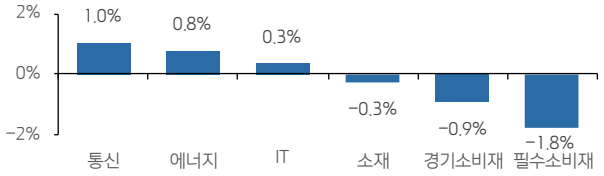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실적시즌 극 초반부이기에, 선제적인 비중 조절보다 향후 추가 상방 재료가 등장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 최소한 삼성전자의 세부 사업 부문별 실적 및 컨퍼런스콜,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미국 M7 실적 이벤트가 몰린 4월 말~5월 초까지는 상기 고민들을 보류하는 것이 적절.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한 채, 4월 말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및 컨센서스 변화를 확인하고 난 뒤 비중 조절하는 것을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가져갈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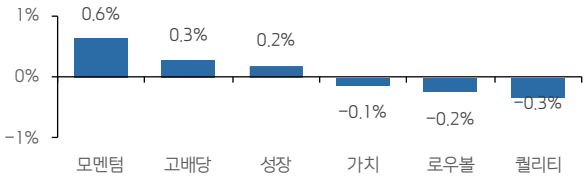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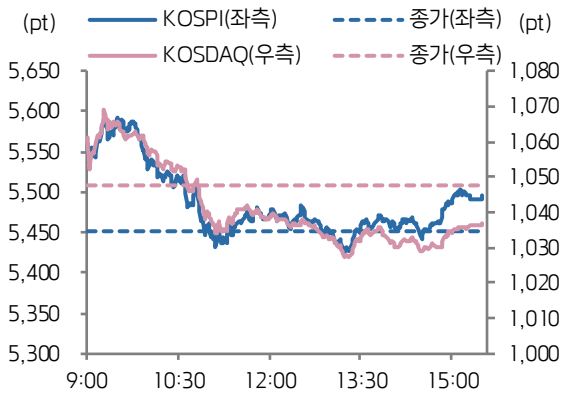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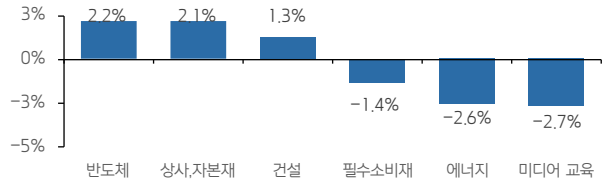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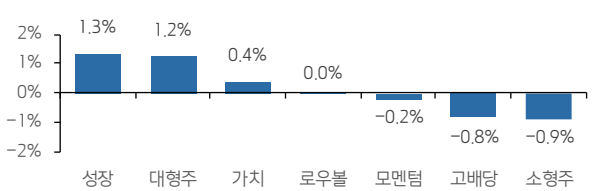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53.50	-2.07%	-6.75%	GM	72.76	-0.91%	-10.53%
마이크로소프트	372.29	-0.16%	-23.02%	일라이릴리	931.09	+0.43%	-13.36%
알파벳	305.46	+1.82%	-2.41%	월마트	122.49	-3.39%	+9.95%
메타	575.05	+0.35%	-12.88%	JP모건	297.40	+0.66%	-7.7%
아마존	213.77	+0.46%	-7.39%	엑손모빌	163.91	+0.33%	+36.21%
테슬라	346.65	-1.75%	-22.92%	셰브론	201.54	+1.35%	+32.24%
엔비디아	178.10	+0.26%	-4.5%	제너럴일릭트릭	122.49	-3.4%	+9.9%
브로드컴	333.97	+6.21%	-3.5%	캐터필러	724.44	+0.44%	+26.46%
AMD	221.53	+0.61%	+3.44%	보잉	210.00	-1.08%	-3.28%
마이크론	377.58	-0.05%	+32.29%	넥스트에라	93.67	+1%	+16.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5,494.78	+0.82%	+30.39%	USD/KRW	1,501.00	-0.58%	+4.27%
코스피200	821.10	+1.14%	+35.5%	달러 지수	99.86	-0.12%	+1.56%
코스닥	1,036.73	-1.02%	+12.02%	EUR/USD	1.16	+0.47%	-1.29%
코스닥150	1,783.80	-0.56%	+15.28%	USD/CNH	6.86	-0.28%	-1.72%
S&P500	6,616.85	+0.08%	-3.34%	USD/JPY	159.62	-0.04%	+1.86%
NASDAQ	22,017.85	+0.1%	-5.27%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6,584.46	-0.18%	-3.08%	국고채 3년	3.446	+1.6bp	+49.5bp
VIX	25.78	+6.66%	+72.44%	국고채 10년	3.755	+3bp	+37bp
러셀2000	2,544.95	+0.17%	+2.54%	미국 국채 2년	3.788	-6bp	+31.5bp
필라. 반도체	8,003.87	+1.11%	+13%	미국 국채 10년	4.293	-3.8bp	+12.6bp
다우 운송	19,538.37	+1.26%	+12.57%	미국 국채 30년	4.870	-1.6bp	+2.7bp
상해종합	3,890.17	+0.26%	-1.98%	독일 국채 10년	3.084	+9.2bp	+22.9bp
항셍 H	8,456.92	-0.56%	-5.1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4,616.58	+0.69%	-12.44%	WTI	112.95	+0.48%	+98.1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09.27	-0.46%	+79.57%
Eurostoxx50	5,633.22	-1.05%	-2.73%	금	4,684.70	+0%	+6.3%
MSCI 전세계 지수	998.09	+0.04%	-1.63%	은	71.99	-1.18%	+1.96%
MSCI DM 지수	4,327.93	-0.04%	-2.31%	구리	556.30	-0.68%	-2.09%
MSCI EM 지수	1,459.53	+0.66%	+3.93%	BDI	2,066.00	+1.77%	+10.07%
MSCI 한국 ETF	127.19	+0.99%	+30.83%	옥수수	449.00	-1.1%	+0.17%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98.00	+0.46%	+15.33%
비트코인	69,309.90	-0.75%	-20.92%	대두	1,158.25	-0.73%	+9.17%
이더리움	2,115.00	-1.58%	-28.97%	커피	286.10	-4.01%	-14.1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4월 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